

수준이다.(총재정 대비, 한국 22.3% / 한국 외 OECD 평균 50.4%, OECD National Account(2005))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저출산·고령화 사회 준비에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역량이 집중되면서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국고보조사업 증가와 더불어 지방비 매칭부담이 함께 늘어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재정부담과 자체사업예산 감소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지방의 총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규모는 매년 평균 6.1% 증가하였다. 반면 사회개발부문 예산규모는 매년 평균 7.7% 증가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총예산 중 사회개발부문이 차지하는 비율(51.4%)이 처음으로 50%를 초과하고 있다. 사회개발부문 중 사회복지예산¹⁾은 매년 평균 15.5% 증가하여, 다른 분야에 비하여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율도 2002년과 2003년에는 9.5%, 9.7%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도에 최초로 10%를 초과하였고 그 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15.4%에 이르고 있다.

<표2> 연도별 「사회개발부문 및 사회복지 예산 규모」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증가율
총 예산	911,154	975,256	988,924	1,070,625	1,154,722	1,119,864	6.1%
일반행정부문	178,688	198,691	218,587	232,220	243,270	256,240	8.0%
(총예산 중 비율)	19.6%	20.4%	22.1%	21.7%	21.1%	22.9%	
사회개발부문	427,345	468,106	480,976	533,616	575,202	575,321	7.7%
(총예산 중 비율)	46.9%	48.0%	48.6%	49.8%	49.8%	51.4%	
사회복지	86,481	94,264	106,678	128,858	153,220	172,825	15.5%
(총예산 중 비율)	9.5%	9.7%	10.8%	12.0%	13.3%	15.4%	
경제개발부문	305,121	308,459	289,361	304,789	336,250	288,303	2.6%
(총예산 중 비율)	33.5%	31.6%	29.3%	28.5%	29.1%	25.7%	

※ 일반행정 : 일반행정 + 민방위 + 지원 및 기타 경비

1) 여기서 사회복지예산이라 함은 세출예산 기능별 표준분류체계에서 사회개발부문(장) 중 사회보장·복지(관)를 의미한다.